



## 인협, 기자간담회

# “인쇄인의 자존심으로 인쇄문화회관 리뉴얼 단행” “60년 전통 자양분 삼아 인쇄업계 선도에 앞장설 것”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은 지난 10월 31일 11시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남수 회장은 인쇄문화역사관의 이전 및 인쇄문화회관의 리뉴얼공사를 마치고 인쇄전문지 기자들과 리뉴얼의 경위와 리뉴얼이 가진 의의를 설명하고 인쇄업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쇄계 김원경, 이해정기자, 인쇄문화 박진우 부장, PT 남영복부장, 유명미기자, 인쇄저널 오혜경 과장, 인쇄산업신문 조차주 부장, 본지 김상호 부장이 참석했다.

### 인쇄문화회관의 리뉴얼과 인쇄문화역사관의 이전에 대해

인쇄문화회관의 리뉴얼을 단행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먼저, 지난 1986년 건축되어 냉난방 설비가 노후화 되어 기존의 기름보일러를 이용한 중앙공급식 냉난방을 전기를 이용한 개별냉난방으로 교체하게 된 것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냉난방 설비를 단순히 교체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인쇄문화회관에 걸맞는 모습이 되게끔 발전적으로 리뉴얼하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의 회장에 취임하며 <스마트협회>를 표방한 만큼 이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감사하게도 인협의 이사님들과 원로님들, 회원들도 리뉴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셔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6. 기자간담회 전경  
7. 인쇄인의 자존심을 강조하는 김남수회장  
8-9.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



이번 리뉴얼이 갖는 의미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활용도 및 접근성이 떨어졌던 인쇄문화역사관과 인쇄문화교육관을 “열린 공간”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인쇄문화회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인쇄문화의 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층 인협 사무공간도 단순한 업무공간을 벗어나 우리나라의 인쇄문화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열린 전시관 및 도서관’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리뉴얼은 변화의 끝이 아니라 대한인쇄문화협회가 노력해온 지난 60년의 전통을 자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계획 등 인협의 역점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먼저,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면, 인협은 그동안에도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해 여러 단체들과 힘을 합쳐 많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 서 왔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인쇄업계가 직면해 있는 여러 현안들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이며, 이런 과정의 하나로 나온 것이 지난 9월 26일 있었던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공청회>였습니다.

인협은 진작부터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의 마련이 우리업계에 끼칠 중요성이 지극히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로서 인협 내부적으로는 법률개정위원회를 가동하였을 뿐 아니라 비전기획위원회,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 등도 관련된 부분에서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왔을 뿐 아니라 각 단체, 학계, 언론계, 업계 등에 의견을 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부에서 뭔가 획기적인 안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정책의 기획과 실행은 일반 기업의 의사결정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순발력 좋은 대응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일단 추진방향이 정해지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유를 한다면, 의사는 환자가 갖고 있는 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지 각성제나 흥분제를 투여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의사의 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출판인쇄산업과>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업계가 오랫동안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노력하면서 무엇이 꼭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파악해서 대응한데 따라온, 우리업계 모두가 거둔 열매인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인쇄산업진흥 5개년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될 인쇄문화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보완하고 수정해가면서 인쇄업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인쇄물 수출 지원센터>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쇄업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스스로가 믿지 못하는 일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쇄물 수출일선에 몸 담아온 저로서는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해도, 해외시장 개척을 향한 새로운 도전과 개척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실현성이 높은 선택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해외 시장 진출은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쇄물 수출지원센터는 올해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인쇄업계의 유력매체에 한국의 인쇄를 알리는 홍보를 이미 시행했으며 해당 국가의 인쇄업계에서 문의가 적잖게 오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프린트차이나, IGAS 등에 한국전시관을 꾸리거나 참관단을 파견했으며 시장개척단도 파견할 예정에 있습니다.

### 회장 재임중에 꼭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인쇄인의 정신적 자산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쇄인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빛나는 유산>으로 우리의 고인쇄문화를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나름대로 현업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인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쇄문화산업>이 출판산업의 하부구조로 인식되는가 하면, 인쇄업계 종사자들도 스스로 단순기능직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인쇄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단정지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인쇄업계를 둘러싼 여러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지가 없다면 그 일은 고역이 될 것이며, 삶은 호구지책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팍팍한 현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수많은 공정을 조화시켜야 하고, 결과물로 나오는 인쇄물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역사적인 산물이자,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인쇄인들이 무한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굳건한 정신적인 자산을 갖게 하는 것은 저와 대한인쇄문화협회의 중요한 비전과 사업목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만드는 인쇄물이 그 읽은 사람에게 양식이 되고, 필요한 정보가 될 것이기에 단순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전달하는 중개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